

DR. Eryl Davies의

「개혁 신학과 생태계의 윤리(Reformed Theology and Ecological Ethics)」에 대한 논평

김기순*

1. Eryl Davies박사의 논문, 「개혁신학과 환경윤리」를 읽고 크게 감명받았으며, Davies박사에게 감사 드린다. 그것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위기의 문제를 제기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2. Davies박사는 먼저 대부분의 저자들이 생태학(Ecology)을 다루면서 정의를 내리고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예외로 Francis Schaeffer나 Edward P. Echin같은 사람들의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F. Schaeffer의 정의: "생태학은 자연에 있어서 생물들의 균형에 관한 연구이다."

Edward Echin: "생태학은 지구의 전체 공동체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Haeckel: "생태학은 유기체들 사이의 관계와 유기체와 그들의 환경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3. 이 논문의 특징은 환경이나 생태계의 위기의 문제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있다. 그에 의하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환경문제

* 철학박사(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윤리학)

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때, 서구인들의 일반적인 대응은 법률적(Legal)이거나 정치적 혹은 기술적(Technical)인 것이었다. 그러나 더 많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환경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못된다는 Lyn White씨의 말을 소개함으로써 그 같은 대응의 효과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의 대응은 세속적인 환경윤리의 대두인데 그것들도 어떤 확고한 원칙을 결하고 있어서 절대적인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그것들은 주로 세속적이고 상대적이며, 성서적인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문제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확고한 기반을 가진 성서적인 환경윤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4. Davies박사에 의하면,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의미의 환경윤리는 성서에 근거한 개혁신학적 환경윤리(a biblical ecological ethics)여야 한다. 과학자 Calvin Dewitt는 “세속적인 환경윤리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의 파멸을 방지할 강한 힘을 가진 하나의 윤리학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포하였다. 그런 힘을 가진 윤리학을 성서에 기초한 개혁신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런데 기독교는 힘있는 환경윤리를 마련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첫째, 성서는 자연에 관한 그릇된 이해를 통하여 자연과 환경파괴에 이바지했다는 것과 둘째, 기독교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anthropocentric)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 환경파괴를 오히려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이같은 비판들과 세속기관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기들의 주도하에 환경의 문제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자 이에 자극받은 교회에서 성서적 기초를 가진 환경윤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성서적인 원리중의 하나는 인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간들이 지구위에 있는 생물과 무생물을 보호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환경윤리를 수립하는 것이다. 1990년에 영국정부는 「이 공동체의 유산」(This Common Inheritance)이라는 보고서에서, “모든 환경

문제 해결의 근거를 마련해 줄 청지기적 윤리의 명령, 다시말해서 지구를 돌볼 인간의 의무를 규정할 청지기 윤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7. 개혁신학에 입각한 환경윤리의 5가지 기초를 Davies 박사는 R자로 시작되는 다섯개의 낱말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것들은 ① 계시적(revealed), ② 관계적(relational), ③ 책임적(reponsible), ④ 구속적(redemptive), 그리고 ⑤ 보상적(회복적)(restorative)기초들이다.

8. 성서의 계시적인 진리가 환경윤리에 대하여 가지는 적합성(relevance)은 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신의 자기 계시에 의존한다는 것과 ② 그 내용은 주로 성서에 기초한 창조신학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창조신앙은 특히 환경윤리의 핵심을 제공하고 있다. 창조신앙에 의하면 세계는 신이 창조하였으므로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인간은 소작인이요 그의 청지기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고 보필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런데 과거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지구의(세계) 주인인양 행세하여 지구를 마구 파헤침으로써 환경파괴의 원흉이 된 것이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그가 세계를 창조하였으므로 자연은 그 자체 본래적인 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나무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의 목적의 일환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나무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치가 주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만으로 보호받을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피조의 세계가 잘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효과적인 방식을 준비해 두었으므로 인간과 같은 파괴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없는 한 스스로 균형을 갖출 수 있다. 요컨대 환경파괴의 원흉인 인간중심적 사고나 공리주의적인 접근방식을 떠나 신 중심적인 사고의 근거를 창조신학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것이 환경윤리의 참 근원이 되어야 한다.

9. 환경윤리의 관계적인(relational)측면이 환경의 윤리에 연결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간이 창조된 피조물(a created creature)이라는 것과 둘째로 그것은 피조물이되 하나님의 형상으로(in the image of God)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이 환경윤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환경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책임한 개발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찾고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까지 나아가고 있다. 환경 파괴의 주범이 인간의 무책임한 자연파괴에서 비롯되었고 환경윤리의 근거도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인간의 책임과 사명의 자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진데, 하나님의 형상과 그에 연루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의 규명에 환경윤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10. 계속해서 Davies 박사는 책임적, 구속적 그리고 보상적인 근원과 그것이 환경윤리에 대하여 가지는 관련성을 비교적 자세하게 논술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과 시간의 제약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개혁신학적 환경윤리의 논의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논평을 끝맺으려 한다.

① 환경윤리의 필요성을 일으킨 인간의 자연파괴와 생태계의 불균형의 원인이 성서(창세기1:26)에 있다는 비판을 기독교가 전적으로 면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문제가 된 성서의 구절 (창. 1:26: "to be the master of all life upon the earth and in the skies and in the seas." 창. 1:28: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it")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개혁 신학에서 해석하는 대로 지구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청지기적 사명의 세계관등 이중적인 내용인가?

② 교회가 환경문제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세인의 비난을 과연 면할 수 있는가? 신학적인 의견

의 차이를 해소할 방법은 무엇인가?

③ 논문 8page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그의 양심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본능적(instinctively)으로 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직관적(intuitive)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가? 그렇다면 직관론적 윤리설의 약점 즉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직관의 내용이 같지 않다는 것인데 그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④ 환경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인간의 직관이나 본능에 따른다면 결국 환경윤리도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즉 인간에게 좋거나 옳은 것은 자연과 다른 피조물 전체에게 좋은것, 옳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⑤ 환경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혹은 기술적인(technical)대응방식이 효과가 없음이 드러나면, 그 대안을 전적으로 성서적인 개혁신학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도 가능한가? 오히려 과학적 기술적인 것과 더불어 법률적,정치적인것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종교적(예컨대 동양의 철학, 종교)인 대안과의 공동 노력에서 찾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아니겠는가?

⑥ The Gaia Hypothesis가 환경윤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부분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⑦ 환경윤리의 발단이 인간의 각성에서 시작 되었는데 그 성공적 결실도 결국은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환경윤리는 인간의 윤리의 한 부분이요 주체는 인간이고 객체는 나머지 피조물들, 다시말해서 식물, 동물, 광물 등 자연이며 그것들은 수동적으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⑧ 환경윤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컨대, 동물 해방론적 접근(Animal Liberation Approach), 대지의 윤리(The Land Ethic), 동물과 식물 및 자연물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접근(Ascription rights to Animals, Plants, etc……)등……그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가?

⑨ 앞에서 박사님이 제시한 5가지 R자로 시작되는 원칙과 그에 입각

한 환경윤리의 근거들을 다 수용한다면 과연 효과적인 환경윤리가 실천될 수 있다고 보는가?

⑩ 끝으로 만일 그런 성서적 근거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서적 환경윤리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논평을 끝내면서 좋은 논문을 발표해주신 Eryl Davies박사님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